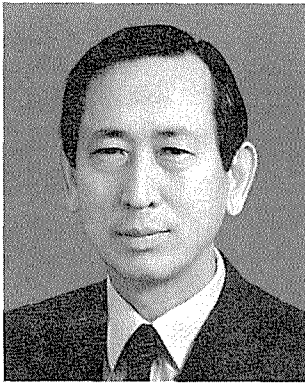


걸프전쟁 이후의 에너지 수급전망과 에너지정책 방향



李 熺 逸
〈동력자원부 장관〉

이 자료는 지난 3월 22일 대한생명빌딩에서 열린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의 전국경영자세미나에서 행한 강연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I. 걸프전쟁에 비추어 본 에너지정책의 반성

1. 국내 石油비축

○ 걸프전쟁 기간중의 석유보유현황('91년 1월말 현재)

(단위 : 백만배럴)

	원 유	제 품	계
정부비축	38.0	1.1	39.1(34)
정 유 사	40.4	22.9	63.3(55)
· 재 고	16.7	19.5	36.2(31)
· 수송중	23.7	3.4	27.1(24)
계	78.4	24.0	102.4(89)

※ () 内는 持續日數, '91 需要 1,146 千B/D 基準

○ 석유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여건상 석유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에너지공급체계의 脆弱性 露呈

- 에너지의 수입의존도(%) : 점차 심화될 전망

· 에너지수입의존도	'73	'80	'85	'86	'87	'88	'89	'90
	55.5	73.5	76.2	78.2	80.0	83.2	85.5	87.6

- 에너지의 석유의존도(%) : 석유의존도 감축 및 에너지원의 다원화 필요

· 石油의존도	'73	'80	'85	'86	'87	'88	'89	'90
	53.8	61.1	48.2	46.4	43.7	47.0	49.6	53.6

- 석유의 中東 의존도(%) : 導入先의 다변화 필요

· 中東의존도 (도입국수)	'73	'80	'85	'86	'87	'88	'89	'90
	100	98.9	57.0	60.5	64.1	64.2	72.7	74.2
	(3)	(8)	(8)	(21)	(20)	(22)	(20)	(22)

2. 석유사업기금

○ 석유사업기금으로 걸프사태 기간중 원유가의 상승에 따라 정유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고 정부보유 비축유의 방출 및 대어를 실시함으로써 석유가격과 수급을 안정시켰음.

《석유비축시설 및 결손보전에 사용된 石油事業基金, 億원》

石油비축사업 투자	9,423 억원
걸프사태 기간중 발생된 손실보전액	8,359 억원
計	17,782 억원

《걸프사태기간중 정부비축 石油대여 및 방출실적, 千배럴》

원 유 대 여	1,330
경 유 방 출	983
등 유 방 출	394
計	2,707

- 걸프사태 직후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4달러에서 20달러 이상으로 급등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차에 걸쳐 石油類 제품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기금 및 관세율 조정(原油 10%→1%)으로 인상요인의 일부를 흡수하였으며 소비억제를 위하여 휘발유와 등유가격을 평균 28% 인상하고 기타 유종은 동결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

《국가별 石油가격 인상내역》

美 國	프랑스, 英國	臺 灣
휘발유 47.8%	휘발유 14%	석유제품 27%
경 유 68.6%		

3. 原子力 發電

- 總 발전량의 49%('90 실적)을 원자력발전이 담당함으로써 石油의존도 감축에 기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發電단가 인하에도 기여

《'90 發電量 구성비, %》

수 력	석 유	L N G	석 탄	원 자 력	計
5.9	17.5	8.9	18.5	49.2	100

《'90 發電單價 비교, 원/KWH》

무연탄	유연탄	중 유	L N G	원자력	水 力	内燃力	평 균
52.15	25.09	37.88	40.89	23.75	23.06	82.40	29.99

4. 에너지절약

- '80년대 후반 에너지가격의 지속적인 인하로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걸프사태가 발생

《에너지 소비증가 추이》

에너지 소비증가율(%)	'76- '79	'80- '85	'86- '89	'90
	13.0	4.5	9.7	13.5

- 우리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됨.

II . 걸프전쟁 이후의 石油수급동향과 石油價 전망

- '91년 3월 12일 OPEC 시장감시위원회 특별회의에서 “국제석유시장을 안정시키고 유가를 OPEC 기준가인 배럴당 21달러까지 회복시키기 위하여 '91년 2/4분기중 원유생산을 현재보다 1백만 B/D 줄이기로 합의

《OPEC 회원국별 산유량 및 쿼터》

(단위 : 千B/D)

	종전쿼터	새쿼터 (3.12기준)	2월 생산량(잠정)
알 제 리	827	827	800
에 과 도 르	273	273	300
가 봉	197	285	300
인도네시아	1,384	1,443	1,400
이 란	3,140	3,216	3,000
이 라 크	3,140	0	200
쿠 웨 이 트	1,500	0	50
리 비 아	1,233	1,425	1,500
나이지리아	1,611	1,840	1,900
카 타 르	371	399	400
사 우 디	5,380	8,034	8,300
아랍에미리트	1,500	2,320	2,450
베네수엘라	2,945	2,235	2,400
計	22,491	22,298	23,000

《OPEC 사무국이 추정한 '91年 自由世界석유수급전망》

(단위 : 백만 B/D)

	1/4	2/4	3/4	4/4	1991
○ 石油수급	52.2	50.4	51.5	53.1	51.8
○ 石油공급	52.1	50.4	51.5	53.1	51.8
비 OPEC	29.0	29.0	29.2	29.7	29.2
OPEC	23.1	21.4	22.3	23.4	22.6
○ 過 不足	△0.1	-	-	-	-

《주요유종 가격동향》

(단위 : \$/B, FOB)

	1989	1990.10	1990	1991. 1	1991. 2	3. 20
두바이	15.65	31.51	20.26	19.65	14.26	14.77
오 만	16.10	32.11	20.85	20.20	14.91	15.32
브렌트	18.23	26.16	23.46	23.99	20.21	19.20
W T I	19.64	36.03	24.34	25.29	20.49	20.71

OPEC 평균(A)	16.56	33.15	21.26	21.24	16.29	-

국내導入價(B)	15.81	25.74	19.99	26.39	21.78 (잠정)	-

(B) - (A)	△0.75	-	△1.27	-	-	-

Ⅲ. 최근의 국내에너지수급동향과 정책과제

1. 에너지수급동향

에너지원별

- '80년대에 들어와 경제성장을보다 낮게 유지되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89년부터 반전되어 '70년대 후반기와 같이 경제성장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GNP 탄성치도 높아지고 있음.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 추이, %》

	'76- '79	'80- '85	'86- '89	'89	'90(잠정)	'91(전망)
· 경제성장률	10.7	6.2	11.2	6.8	9.0	7.0 수준

· 에너지소비증가율 13.0 4.5 9.7 8.4 13.5 11.9
(1차 에너지)

· 에너지/GNP 탄성치 1.21 0.73 0.87 1.24 1.50 1.70

- 에너지원별 수급은 60년대는 주로 국내자원인 신탄과 무연탄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해외자원인 石油, 유연탄 및 원자력 위주로 공급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에너지源別 공급 비중, %》

	1962	1990	1991(전망)
· 무 연 탄	35.6	11.0	9.6
· 신 탄 · 수 력	53.4	2.6	1.7
· 石 油	9.8	53.6	56.9
· 유 연 탄	1.2	15.4	16.4
· 원 자 력	-	14.1	12.2
· L N G	-	3.3	3.2
計	100	100	100

-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石油, 전기등 고급에너지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와 석유 의존도가 점차 증가

《에너지원별 소비증가율 추이, %》

	'80-'85	'86-'89	'90	'91(展望)
· 石 油	0.5	11.0	23.2	18.3
(電力)	(8.5)	(12.8)	(14.6)	(10.6)
· 有 煙 炭	22.5	8.6	5.3	19.8
· 無 煙 炭	5.4	△2.2	△8.8	△2.9
· 原 子 力	32.1	29.7	10.6	△3.2
· 其 他	△2.7	13.0	12.0	△4.7

《에너지의 수입 및 석유의존도》

	1980	1985	1987	1990	1991(전망)
· 수입의존도(%)	73.5	76.2	80.0	87.6	90.6
· 석유의존도(%)	61.1	48.2	43.7	53.6	56.9

에너지 수요 부문별

- 부문별 에너지수요는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기타의 순임.

《'90 부문별 에너지수요 구성비, %》

산 업	가정·상업	수 송	공공·기타	計
47.3	29.6	19.0	4.1	100

- '80년대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소비가 '90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성 고급에너지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부문별 에너지소비증가율 추이, %》

	'80 - '85	'86 - '90	'90
· 산 업	4.0	12.1	14.6
· 수 송	3.0	16.2	15.8
· 가정·상업	4.7	4.0	10.5
· 공공·기타	3.8	7.6	13.9
計	4.1	9.7	13.5

《소비성 에너지소비증가율 추이, %》

	'86 - '89	'89	'90
· 수송용휘발유	31.0	37.5	34.3
· 가정·상업용등유	16.2	52.9	83.2
· 상업용 전력	21.2	23.1	26.8
· 가정용 전력	12.0	14.9	16.9

- 가정·상업부문의 경우 '80년대 후반의 저에너지가의 지속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편의성 선호로 연료의 주종이 무연탄에서 석유등 고급에너지로 대체되고 있음.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비중, %》

	1988	1990	1991(전망)
· 무 연 탄	57.1	41.9	39.0
· 석 유	27.1	40.0	41.3
· 전 력	8.7	11.0	12.1
· 도시가스	1.2	3.5	4.9

- 따라서 각 부문별로 에너지사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91 에너지수급 및 주요에너지 관련지표

	단 위	1989	1990(잠정)	1991(전망)
1차 에너지 소비	천 TOE	81,659	92,673	103,662
(증 감 률)	(%)	(8.4)	(13.5)	(11.9)
최종 에너지 소비	천 TOE	65,804	74,699	84,183
(증 감 률)	(%)	(7.9)	(13.5)	(12.7)
에너지 투입 비중	TOE/'85 불변	0.683	0.711	0.743
(증 감 률)	백만원(%)	(1.5)	(4.1)	(4.5)
에너지/GNP 탄성치		1,235	1,500	1,700
1인당 에너지소비	TOE/人	1.927	2.166	2.399
(증 감 률)	(%)	(7.4)	(12.4)	(10.8)

1인당 전력소비 (증 감 률)	KWP/人 (%)	1,940 (9.5)	2,202 (13.5)	2,412 (9.5)
하루 석유 소비량 (증 감 률)	천 B/D (%)	786.7 (14.6)	969.1 (23.2)	1,146.4 (18.3)
에너지 수입의존도	%	85.5	87.6	90.6
석유 의존도	%	49.6	53.6	56.9
석탄 비중 (무연탄 비중)	% %	30.0 (13.5)	26.4 (11.0)	26.0 (9.6)
원자력 비중	(%)	14.5	14.1	12.2
에너지 수입액 (증 감 률)	백만 달러 (%)	7,526 (21.2)	10,941 (45.4)	13,869 (26.8)
석유 수입액 (증 감 률)	백만 달러 (%)	5,691 (27.5)	8,974 (57.7)	11,447 (27.6)

2. 에너지부문 여건전망

-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에너지수요의 양적 팽창과 질적 변화

《에너지수요의 양적 팽창, (TOE/人)》

	1991	2000
- 1인당 에너지소비	2.40	3.05
	(100)	(127)

《에너지수요의 고급화, (KWH/人)》

	'91	2000
- 1인당 전력소비	2,412	3,724
	(100)	(154)
- 최종에너지중 전력비중(%)	10.7	13.4

- 에너지공급부문의 제약 요건 점차심화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고조 및 입지확보의 어려움 가중(특히 원전의 경우)
- 국제정치·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부문의 국제화 및 개방화 가속
 - 북방과의 에너지교류 확대
 - UR과 국내 에너지시장의 개방화 압력가중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적 요구수렴 불가피
 - 지방분권화에 따라 에너지정책측면에서도 점진적 변화예상

3. 주요 정책과제

가. 에너지가격관리 - 단계적 자율화

石油價格

- 이미 자율화된 일부품목(고급휘발유, 나프타, 윤활유등)에 추가하여 휘발유 및 등유등에 대하여도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자율화하여 국제유가에 연동화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다른 품목에 까지 확대
- 걸프사태후 '90. 11월 소비억제의 측면에서 휘발유·경유가격을 28% 인상하였지만 국제유가상승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된 정유사의 손실(기준원유가와 실도입가의 차액)은 기금으로 보전

《損失補填 소요액, 억원》

	'90. 12末	'91. 1-3	計
- 손실발생액	9,467	2,760	12,227
- 기금보전액	8,359	-	8,359
- 부족자금	△1,108	△2,760	△3,868

石炭價格

- '89년과 '90년에는 재정과 석유사업기금에서 石炭價格引上要因을 흡수함으로써 연탄가격을 동결
《石炭價格 대책비 지원내역, 억원》

정 부 지 원	1989	1990	計
	691	1,322	2,013

- '91 광원임금 9% 인상 전제시 가격동결을 위해서는 2,030億원(석탄 1,433億원, 연탄 597億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확보된 재원은 720억원(재정 183억원, 기금 400억원, 기타 137억원)
- 현재 추진중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은 국내석탄생산 규모가 1,200만톤(2000년경)이 될때까지 지원 필요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실적 및 계획》

	1989	1990	1991(계획)
- 규 모(千원)	4,343	1,943	1,300
- 지 원 액(億원)	870	284	368

※ '91 신청규모 : 계획보다 894千톤을 상회하는 2,194千톤(추가소요 272억원)

나. 에너지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 강화

- UR등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의 체제 정비가 필요
- 유가자율화와 더불어 석유유통부문의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실시
 - 석유유통구조 개선 추진

IV. 앞으로의 에너지정책방향

1. 석유비축 및 에너지공급시설의 확충

에너지소비증가에 대처하여 에너지비축시설과 공급시설 능력을 확충하여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도모

가. 石油 및 가스비축

- '96년까지 석유비축 60일분 확보
 - 原油를 주로 비축하되 제품 및 가스비축도 병행 추진
 - 석유산업의 자율화 추이에 병행하여 '91. 1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민간비축의 의무화 추진

○ 정부 석유비축현황 및 계획

		1990	1996
石油	— 시설용량(백만배럴)	42.4	94.8
	— 비축량(")	38.0	85.0
	— 지속일수(日)	34	60
	— 투자비(億원)	8,504	16,775
가스	— 시설용량(千톤)	160	320
	— 비축량(")	112	272
	— 지속일수(日)	20	30
	— 투자비(億원)	920	678

※ 1) 지속일수는 '91 수요기준

2) '96 투자비는 확장을 위한 건설비 및 비축물량 구입비 포함

나. 전국 LNG 공급망 건설

- 가스의 소비증가에 따라 LNG 인수기지 확장 및 전국공급망 건설 - 전국 56개도시에 연차적으로 확대
 - 인수기지 건설

	1990	1996
· 처리능력(千톤/年)	2,000	9,000
· 신규투자비(億원)	—	4,344

- 主 공급망 건설	1990	2000
· 연장(km)	226	1,544
· 신규투자비(億원)	-	9,415

다. 석유정제시설 확충 및 현대화

○ 최근 국내 석유수요의 급증에 따라 정제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함.

	1990	1993
- 정제시설 능력(천 B/D)	940	1,235
· 신규투자비(억원)	-	3,384

○ 에너지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증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의 건설추진

	1990	1993
- 重質油 분해시설(천 B/D)	34	120
- 탈 황 시 설 (")	-	120
· 신규 투자비(억원)	-	10,936

라. 전국송유관 건설

○ 국내석유의 원활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전국송유관 건설

《전국 송유관 현황 및 계획》

	연장(km)	투자비(억원)	工期
· 서산 - 천안	93	224	1989. 7(完工)
· 인천 - 서울	31	612	1990 - '92
· 서울 [여천] [온산]	870	5,053	1990 - '93
計	994	5,889	

마. 전력시설 확충

○ 최근의 급격한 전력수요증가로 '90년부터 전력공급예비율이 적정수준에 미달

- '87~ '90년간 전력수요는 7,337千KW가 증가(연평균 14.9%) 하였으나,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발전설비는 2,991천KW 증가에 그침
- '91 최대전력수요는 2,377千KW 증가 전망이나('90년 2,194千KW), 시설용량은 118千KW 증가에 그쳐 전력수급불안 가중

○ 단기적으로 휴지발전소의 운전재개(8機 1,510千KW)와 수요관리강화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수급계획을 조정하여 신규발전소 건설 추진

《전력수급실적 및 전망》

	1990(A)	1991전망(B)	증감(B-A)
· 시설용량(千KW)	21,008	21,126	118
· 공급능력(")	18,680	20,509	1,829
· 최대수요(")	17,252	19,626	2,377
(증가율)	(14.6)	(13.8)	(△0.8)
· 공급예비율(%)	8.3	4.5	△3.8

《신규발전소 건설계획('91-2001)》

- 시설용량 · 27,750 千KW
- 투자비 소요 · 31.1 兆원

2. 국내외자원의 적극개발

“세계의 자원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진취적인 사고로 북방권을 포함한 자원보유국과의 자원개발협력을 강화하여 에너지 및 산업원료자원 확보의 항구적인 안정기반을 조성

- 자주개발 공급목표(2000年)

原 油	有 煙 炭	우라늄
20%	30%	30%

- 추진현황

- 국내대륙붕

- 국내대륙붕 탐사결과 제6-1 광구에서 세차레 가스田을 발견하고 경제성을 평가·개발계획 수립 예정

'91년에 서해안 대륙붕탐사 시추 3개공 실시(第 1, 2, 5 광구)

- 해외석유

- 16個 사업에 진출하여 '90년에 원유 7,750千 배럴을 개발도입

개발사업	: 3個(예멘,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평가사업	: 5個(미국 육·해상, 에콰아돌, 말련, 이집트)
탐사사업	: 8個(인도네시아외 7개)

- 해외 유연탄

- 7개사업에 진출하여 '90년에 유연탄 2,150千톤을 개발도입

- 추진방향
 - 성공불 용자등 개발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 국내대륙붕 개발사업의 지속추진
 - 정부 주도하에 기초 탐사시추
 - 유망구조에 대하여 유개공과 외국개발회사의 공동개발 추진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
 - 민간주도하에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외국회사와 공동개발 추진
 - 북방권 국가 포함 진출대상지역의 다변화 추진
 -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강화
 -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 호주등 4개국 → 캐나다, 말레이시아등 추가(7개국)
 - 자원관 판권 확대 · 인도네시아, 소련등
 - 자원보유 개도국에 대한 광물공동 탐사및 기술훈련 지원

3. 대체에너지 개발 · 보급 확대

대체에너지의 실용화 및 보급확대로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를 축소하고 환경개선에 기여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등 10개분야)에 대한 제1단계('88~'91) 연구기반구축
 - 그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실용화 대상분야를 설정

	中 長 期 實 用 化 分 野
태 양 에 너 지	낙도 전기공급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바 이 오 에 너 지	메탄가스 발생시설
폐 기 물 에 너 지	도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
연 료 전 지	소형 발덩용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91년중 시범적으로 태양光 발전시설 설치
 - 馬 羅 島 : 30KW급 발전시설
 - 고속도로 : 비상 주차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가설(311개)
-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매립지난을 해소하고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개선에 기여
 - 도시폐기물 소각열 이용시설 설비(大德, 100톤/日 규모)
 - 廢타이어 소각열 이용시설 적극보급
 - 산업폐수이용 메탄가스발생시설 보급(반월, 100m³/日 규모)

4. 石油事業基金의 적정운용

石油事業基金의 가격인상기능을 축소·폐지하여 사업성 기금으로 전환

- 석유비축 및 국내외 자원개발등에 집중지원
- 송유관 및 가스공급시설등 에너지기초시설 건설 지원
-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 계속지원

○ 基金 운용실적 및 계획

《石油事業基金 '90운용현황 및 '91운용계획, 억원》

1990 운용현황	금 액	1991 운용계획	금 액
○ 기 금 조 성	55,447	○ 基 金 造 成	4,290
- 기금징수	43,446		
- 운용수익	12,001		
○ 사 용	55,447	○ 사 용	4,290
- 지 원	6,188	= 석유비축	622
(對替에너지개발 및 석탄산업합리화사업 등)		- 국내외 자원개발	791
- 투 자	9,903	- 석유개발공사운영	135
· 비축시설 건설	2,808	- 원유도입선다변화	21
· 비축유 구입	6,615	- 석유품질관리	8
· 유전개발 사업	198	- 에너지이용합리화	914
· 송유관 사업	282	- 대체에너지보급사업	135
- 용 자	22,183	- 도시가스사업	286
· 민간비축지원	829	- 석탄산업지원	634
· 유전개발 사업	1,893	- 장거리 송유관 건설	429
· 에너지이용합리화	12,004	- 중질유분해 및 탈황	200
· 도시가스 사업	4,758	- 에너지 기술개발	115
· 저탄 및 석탄광개발	2,999		
· 重質油분해시설	540		
· 송유관 건설	190		
· 해외자원개발	426		
· 전원개발	3,370		
※ 융자금회수	-4,826		
- 예탁자금	16,499		
- 이 월	674		

- '91, 운용방향
 - 비축·자원개발·송유관건설등 에너지위기관리능력제고 및 에너지분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지원
 - 에너지수급 안정기반구축을 통한 본원적 국제유가 변동 흡수 능력제고
 - 에너지기술개발 지원확대
 - 구조적 에너지절약의 적극 추진
 - 유가원충재원은 국내유가관리와 별도 운용
 - 에너지위기관리능력 제고 및 에너지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지원
 - 정부 석유비축사업의 적기 추진
 - 석유류제품 유통 및 당면 수송부문 익로원충에 기여토록 장거리송유관 건설 지원
 - 중장기 에너지수급안정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유가 변동 흡수반영 제고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 에너지기술개발 지원 확충
 - 구조적 에너지소비절약의 적극 추진
 - 신도시 건설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사업 지원
 - 유가원충재원은 국내유가관리와 관련 별도 운용

5. 에너지절약시책의 내실화

○ 부존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절약은 곧 제2의 생산”
 이므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기하고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

- 가격기능을 통한 에너지절약 유도
 - 국제원유가변동에 따라 국내에너지가격을 신속성 있게 조정
 - 전기절약 및 수요분산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
 - 요금의 누진을 확대 및 계절적·시간대별 요금차등폭 확대
- 지속적인 절약기반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보완하여 일부 규제시책을 법제화
 - 산업체에 대한 에너지관리진단 및 시설개선 유도
 -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향상목표 설정 (자동차, 가전제품 등)
 - 건물의 냉난방 온도기준 설정
-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에너지효율 증대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제조업설비투자중 에너지절약 투자비중을 제고
 -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관리진단가능 강화
 - 다소비업체 자체전담반 구성운영 ('91중 983업체)
 -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91중 250업체)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자금공급의 확대
 - 시설자금 용자시 절약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용자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본격적 확대
 - 수도권 5개 신도시등에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건설 촉진
 - 유연탄을 이용한 열공급발전 건설 촉진
 -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정
- 에너지 절약기술개발의 촉진
-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의 전개

땅이름에 얽힌 이야기 / 강원도 원주군 普通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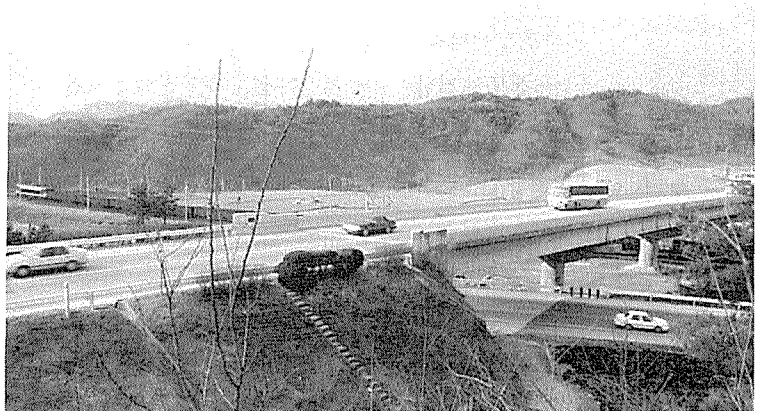
‘넓게 통하는’ 마을답게 여러 길 뚫려

서울에서 중앙선 열차를 타고 1시간 반쯤 달리다보면 경치가 빼어난 섬강 유원지인 간재(艮峴)가 나타난다. 곧이어 원주가 가까워지면서 영동고속도로가 중앙선 철길을 높이 가로질러 지나가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강원도 原州郡 地正面 普通里이다.

普通里를 풀이하면 ‘넓게 통하는 마을’이란 뜻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1930년에 건설된 중앙선 철도, 1940년에 개설된 국도 제42호선, 1972년에 개통된 영동고속도로 등이 모두 이 보통마을을 가로 세로로 얽혀 통과하고 있어 ‘넓게 통하는 마을’이란 뜻의 普通里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또한 面 이름이 ‘地正’, 즉 땅이 바른 곳이니 어떤 길인들 이곳을 지나지 못하랴. 그런데 실제 이곳을 찾아 살펴보면 땅이름 같이 넓게 통하는 마음만큼이나 바른 곳이 아닌 태백산 자락에서 뻗어난 치악산의 음산한 그림자 밑 섬강지류에 자리한 전형적인 강원도 산골 마을이다.

비탈진 밭고랑엔 담배, 고추, 옥수수 수를 심었던 흔적이 들성들성 남아 있고 여름내 밭을 지키던 허수아비는 말라 비틀어져 있다. 또한 기차 역에는



땅이 곧이 넓게 통한다는 강원도 원주군 地正面 普通理. 중앙선 철길 위로 영동고속도로가 뻗어 있다.

토막난 목재가 쌓여 어디론지 실려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보통마을 이웃에는 言論(어루니, 월운이라고도 함) 마을과 옥바위가 있다.

옥바위는 ‘마당바위’라고도 하는데 옛날 감사, 부사, 수령 등이 이곳을 지나갈 때면 마을 사람들이 이 바위 뒤에 숨어 큰 소리로 폐정을 고발하고 규탄하며 충고했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이 옥바위에서의 규탄이나 고발을 목격된 하나의 불문율로, 성당의 고해성사처럼 면죄가 되는 신성

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어루니, 즉 言論이 되었다고 하니 제한된 장소나마 백성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완고했던 봉건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언론 개진의 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기가 이 마을 사람들이 原城郡이란 땅이름이 怨聲과 발음이 같다하여 굳이 原州郡으로 고쳐 부른 것도 알만하다.

李 洪 煥
(호남정유 수송부 차장)